

요약 및 정책건의

I. 연구 개요

1. 연구 배경 및 목적

- 최근 환경복지, 시민참여 녹지, 도시농업 등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녹지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으며, 공원녹지 입양 제도의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임.
- 이러한 시점에서 공원녹지 입양 제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새로운 모델이 요구되고 있음.
- 이 연구는 기존의 가로수 및 공원시설에 대한 입양 제도를 도입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, 지속가능한 제도의 정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.

2. 연구 범위 및 방법

- 현재 서울시는 공원녹지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으며, 이 사업에는 노인일자리 사업, 초·중·고 봉사활동, 돌보미(개인, 시민단체, 기업, 기관 등의 입양) 사업이 혼재되어 있음.
- 이 연구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입양 제도의 취지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초·중·고 봉사활동, 개인, 시민단체,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돌보미 사업만을 연구 범위로 함.
- 이 연구에서 ‘입양’은 수목 및 공원 부분에 시민이 활동 및 기부를 통해 협

력한다는 의미를 가지며, 대상범위는 ① 행정에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수목 및 공원 부분, ②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수목 및 공원 부분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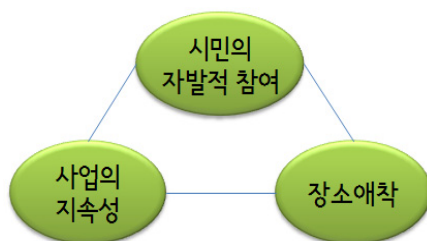
- 이 연구의 방법은 관련 사례와 서울시 선행제도를 분석하여 공원녹지 입양 제도를 구상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함.

II. 제도 구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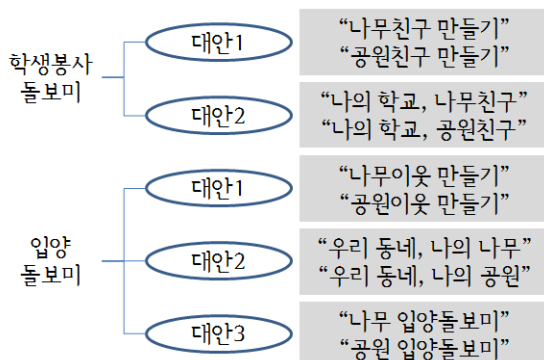
1. 공원녹지 입양 제도의 방향

- 공원녹지 입양 제도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임. 첫째, 공원녹지 입양 제도가 장기적·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우선되도록 하는 것임. 둘째, 참여하는 시민이 입양한 장소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. 셋째, 사업이 일관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추진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의 지속성임.

- 현재 ‘돌보미’라는 제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, 학생 봉사활동, 시민단체·개인·기업



〈그림 1〉 공원녹지 입양 제도의 기본방향



〈그림 2〉 공원녹지 입양 제도의 이름짓기 대안

입양이 포함되어 있어 본래 입양의 의미보다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음. 따라서 학생 봉사활동, 시민단체·개인·기업 입양에 한해서는 시민에게 쉽게 다가가고 특성화된 이름을 지어서 제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.

2. 적용 대상 구상

○입양 대상 도출

—가로수 : 띠녹지가 조성된 가로수 286개 노선, 총 연장 807km가 입양대상임. 여기엔 가로수, 교목, 관목이 약 500만 그루가 식재되어 있음. 가로수 주변 토지이용 현황, 교통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양을 우선할 수 있는 단계화가 필요함.

—공원 : 시직영 및 기타관리공원은 현재 시민참여 및 관리주체와 절충을 하면서 입양부분에 대한 선별 과정이 필요함.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중 입양 가능한 자치구 관리 공원은 생활권공원 1,402개소, 주제공원 26개소, 기타공원 513개소 등 총 1,939개소로 추정됨. 입양 시 행정에서의 관리가 소홀하거나, 시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소규모 공원을 우선으로 하여 입양하는 것이 필요함.

—공원 내 시설 : 시설물만 단독 입양하는 것이 아닌, 공원의 일정구역을 입양하면서 그 구역에 포함된 시설물 중 입양이 가능한 시설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. 입양 가능 시설은 도로 및 광장, 조경시설, 휴양시설, 유희시설, 화장실, 출입문, 울타리, 담장 등임.

○입양 제도 유형 구분

—대상 유형별 단위 설정 : 가로수 및 띠녹지는 ‘①가로수 한 그루→②가로수 포함 띠녹지→③블록단위 가로’의 세 가지 단위로 입양단위를 설정하고, 공원에 ‘①공원수목 한 그루→②녹지(화단)→③일정구역 또는 공원 전체(입양가능 시설물 포함)’의 세 가지 단위로 함.

—참여 대상별 세부 유형 구분 : 현재 공원녹지돌보미 사업을 ①노인 일자리 돌보미, ②학생 봉사 돌보미, ③입양 돌보미로 구분하고,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입양 제도는 ③입양 돌보미에 한정하도록 함. 또한, 입양 돌보미 제도는 ①관리활동, 청소 등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활동형 입양, ②초기 식재비용을 기부하거나, 일정 관리 비용을 기부하면서 관리활동을 하는 활동 기부형 입양, ③원예, 조경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지원자가 참여하는 전문기술형 입양으로 구분하여 추진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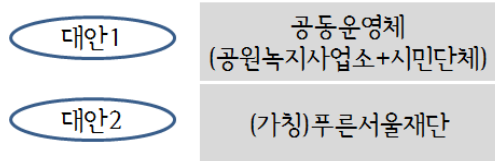
〈표 1〉 입양 제도 참가자 및 유형 구분

사업명	세부명	참가자	내용	
공원녹지 돌보미	노인일자리 돌보미	노인일자리 사업 참가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리활동에 참여하고 일정 대가를 지급받는 유형 월 40시간 활동/20만원 지급 	
	학생봉사 돌보미	초·중·고등학생	활동형 입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리활동에 참여하는 유형 학생 봉사활동 : 봉사활동시간 인정
	입양돌보미	개인(가족)	활동형 입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리활동 및 환경정화활동 식재 및 관리를 하는 입양 유형
		시민단체	활동기부형 입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식재 및 관리 비용 기부 관리활동 및 환경정화활동 식재 및 관리 활동에 비용을 부담하면서 참여하는 유형
		기타기관 (지역협회, 종교단체 등)	전문기술형 입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예, 조경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지원자가 참여하는 유형 토양관리, 전정, 식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관리하는 활동
		기업		

3. 절차 및 조직 구상

- 입양의 절차는 입양 전 교육 프로그램과 입양 후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1년, 3년, 5년 단위로 입양하도록 함.
-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원녹지돌보미 사업 중 공원돌보미는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, 가로수 돌보미는 조경과에서 맡고 있음. 서울시가 상위에

서 운영하면서 자치구청을 통해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고, 협약 체결 및 활동도 자치구에서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음. 시는 상위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자치구별로 신청자를 취합하며, 자치구는 실행하는 역할분담을 하고 있지만, 인력부족, 업무과중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<그림 3>과 같이 운영조직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함.



〈그림 3〉 운영 조직 구상

○ 공원녹지 입양 제도의 시민

참여가 활성화되려면,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함. 신규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(예 : <http://www.seoul-adpotgreens.go.kr>),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(<http://parks.seoul.go.kr/park>)를 갱신보완하여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.

Ⅲ. 운영방안 구상

1. 효율적 운영방안

- 공원녹지 입양 제도는 아직 행정, 시민, 시민단체 모두에게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. ①교육과 홍보의 단계, ②체계적인 기반 구축의 단계, ③활성화 단계로 제시함.
- 공원녹지 입양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극복하기 위해 유사정책의 통폐합, 소규모 관리부재 공원녹지에의 집중, 사후 평가 시스템의 도입,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, 활동의 범위 설정 등을 제안함.
- 서울시는 2013년 초부터 ‘서울, 꽃으로 피다’, ‘푸른도시선언’ 등 여러 가지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, 공원녹지 입양 제도와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되도록 함.

2. 시민단체 연계방안

- 공원녹지 입양 제도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① 운영기관으로서 행정과의 협력, ② 운영 시 컨설팅, 모니터링, 코디네이터, 지역 안내 등의 활동 지원, ③ 공원녹지 입양 참여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.
-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가자 모집 홍보, 입양 제도 참가자 관리 프로그램 마련, 지역 코디네이터의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함.

3. 행정적 지원 및 법제도 개선방안

- 공원녹지 입양 제도에서의 행정적 지원은 홍보행사 개최, 홈페이지 구축 등 홍보분야 행정지원과 매뉴얼 지원, 교육 프로그램 운영, 인센티브 개발 등 입양과정에서의 행정지원, 입양자 간 교류 활동에서의 행정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.
- 서울시의 공원녹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녹지 입양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.
- 공원녹지 입양 제도의 한 가지 유형인 ‘활동기부형 입양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경로가 필요하지만, 현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제5조 ①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민 단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안함.

Ⅳ. 정책건의

1. 민관파트너십 구축

- 공원녹지 입양 제도는 행정의 적극적 지원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원활하게 상호 작용해야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.
- 시민뿐만 아니라, 시민단체, 민간기업, 지역협회 및 단체를 포함한 광의적 개념의 ‘민(民)’과 ‘관(官)’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.
- 행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, 시민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안목을 갖추어야 할 것임.

2. 입양대상 가로수 및 수목 입양의 우선단계 설정

- 현재 서울시의 공원녹지 입양 제도는 모든 띠녹지 가로수와 공원이 입양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, 시민이 공원과 가로수에 대한 정보없이 돌보미를 신청하고 있음.
- 따라서 가로수와 공원의 ‘입양우선 가로수 및 공원’의 단계화가 필요함. 주변 토지이용, 관리현황(시관리, 구관리, 민간위탁관리 등), 교통량, 이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입양의 우선단계를 설정한 후, 신청하는 단체 및 개인과 의사소통을 통해 조정

3. 홈페이지 구축

- 시민참여를 가장 원활하게 유도하는 방안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며, 이 방안은 시민들로 하여금 가장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때문에, 홍보가 가장 빠르고 파급효과도 큰 방법임.

- 공원녹지 입양 제도에 원활한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며, 단독 홈페이지나 기존 서울시 공원녹지 관련 홈페이지의 일부분으로 포함시켜 구축할 수 있음.
- 공원수목 위치 정보 제공, 입양참여 진행, 회원제 운영, 홍보 등 입양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.

4. 공원 및 수목관리 전문교육 시스템 구축

- 공원녹지 입양 제도는 한 생명을 돌보는 활동으로서 생명체인 수목의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. 입양 전후 단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자의 식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의 질을 높이도록 함.
-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입양 제도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도록 하며, 입양 제도에 직접 참여하여 수목이나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.

5. 사업전담 조직 마련

- 현재 조경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, 시민참여 공원녹지 정책의 지속성과 시민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공원녹지 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관리 전담조직의 대안으로 서울시의 공원녹지사업소와 시민단체가 공동운영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공원녹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을 조직하는 방안을 제안함. 재단 조직 후 안정단계까지는 재정적인 투자에 부담이 있지만, 녹지정책의 시행과 기부금 전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임.